닛신보 – 품질 보증 체제를 오사카 지사에서 집중 관리

닛신보의 섬유 사업 본부는, 2009년 4월부터 닛신보 텍스타일로 분사화하는 데에 맞추어, 닛신보 상품의 품질 보증을 오사카 지사에서 집중 관리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해외 생산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닛신보는 이제까지 각 공장에 품질 보증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 생산 현장을 중심으로 품질 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2008년에는 아이치현(愛知縣)에 있는 미아이 사업소(美合 事業所)의 무지 연속 염색 가공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협력 공장에서의 위탁 가공이 늘었다. 또한 앞으로는 인도네시아의 기스텍스 닛신보 인도네시아(G&N) 등 해외 관리 회사에서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래서 닛신보는 “협력 공장의 가공 제품이나 해외 생산 제품에 대하여 ‘닛신보 품질’을 보증하는 관리 체제가 중요하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사카 지사에 품질 보증과(品質 保證課)를 만들어 일원 관리(一元 管理)함과 동시에 오사카의 컨트롤을 받으며, 해외 공장에 기술자를 파견, 주재, 순회시키는 등 품질 관리 측면에서 글로벌 오퍼레이션(global operation)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 2008년부터 일부 품질 관리를 시작하였으며, 닛신보 텍스타일이 2009년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데에 맞추어 품질 관리 활동도 본격화하였다.♣